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

<제시문 1>

맹자께서 양양왕을 만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멀리서 보니 임금 같지도 않고 가까이 가도 두려워할 바가 없었는데, 문득 물기를 ‘어떻게 하면 천하(天下)가 안정되었습니까?’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누가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가 통일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누가 능히 그를 따를까요?’라고 물기에 대답하기를 ‘천하에 그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왕께서는 저 착을 아십니까? 7, 8월 사이에 날이 가물면 썩이 마르다가 하늘이 뭉게구름을 만들어 콰콰 비를 내리면 썩이 힘차게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되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임금들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거늘, 만약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목을 빼고 우러러 볼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을 것이니, 백성들이 힘차게 일어나 돌아옴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제시문 2>

목적론적 윤리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음을 전제하고서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행복과 쾌락 등 다양한 인간 삶의 목적이 존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목적을 성취해 내는 삶이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도덕적인 것이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임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살면서 좋다고 여기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된다. 설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윤리 규범을 어기게 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만 있다면, 예컨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요구된다. 이와 같은 목적론적 윤리는 이성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과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시문 3>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와는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행해져야 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고집하는 군주는 자신의 국가를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선하게만 행동하려는 사람은 전혀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패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권력을 보존코자하는 군주는 비록 선하지 않은 수단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4>

<미션>은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18세기 중반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접경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한 예수회 신부들이다. 원주민 파라니 부족의 마음을 얻은 가브리엘 신부와 동료들은 밀림 속에 교회를 세우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175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합의한 새로운 영토 분계선에 따라 파라니족 마을은 포르투갈 식민지로 편입된다. 교황청은 이에 불응하는 파라니족과 신부들을 설득하고자 주교를 파견한다. 그러나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주교의 명령과 달리 신부들은 원주민들을 돕기로 결정한다. 무력으로 원주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한 신부(로드리고)에게 가브리엘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신부답게 원주민을 도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면 당신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것이요. 당신은 하느님께 삶을 위탁하지 않았소? 하느님은 사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는 칼을 차고 와서 전투에 나가 죽게 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한다. 가브리엘 신부는 그 요청을 거절하며 말한다. “그럴 수 없소. 만약 당신이 옳다면, 당신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만일 그르다면, 내 축복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무력이 정당하다면, 이 세상에 사랑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요.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소. 그래서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가 없소.”

<제시문 5>

저(라스플리니코프)는 ‘비범한’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뛰어 넘어 어떤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신념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말입니다. 제 생각에 케플러나 뉴턴의 발견에 방해가 되거나 연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몇몇 혹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견과 연구를 성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뉴턴은 자기 발견을 전 인류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그 방해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2] [문제 1]의 대립 구도 하에서 <보기 1>의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서술하시오. (25점)

<보기 1>

“전하, 뜻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길 터인데, 이 항복 문서가 과연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상헌이 다시 임금을 다그쳤다. “전하, 이제 칸을 황극으로 칭하였으니 문서가 적에게 가면 전하는 칸의 신하가 되고, 신들은 칸의 말잡이가 되며, 백성들은 칸의 종이 되는 것이옵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상헌이 다시 말했다. “적이 비록 성을 에워쌌다 하나 아직도 고을마다 백성들이 살고 있고 또 의지할 만한 성벽이 있으며, 전하의 군병들이 죽기로 성첩(城堞)을 지키고 있으니 어찌 회복할 길이 없겠습니까. 전하, 명길을 멀리 내치시고 근본에 기대어 살 길을 열어 나가소서.”

최명길은 말했다. “상헌은 제 자신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적들이 성벽을 넘어 들어오면 세상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온데, 상헌이 말하는 근본은 태평한 세월의 것이옵니다. 세상이 모두 불타고 무너진 풀밭에도 아름다운 꽃은 피어날 터인데, 그 꽃은 반드시 상헌의 낚일 것이옵니다. 상헌은 과연 백이(伯夷)이오나, 신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초라한 세상에서 만고의 역적이 되고자 하옵니다. 전하의 성단(聖斷)으로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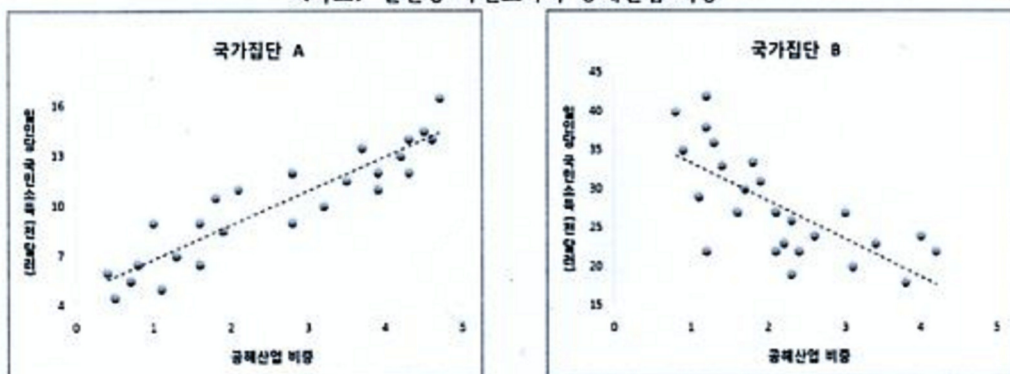
김상헌이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소리쳤다. “전하, 명길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고……”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을 막았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고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셔야 할 길바닥이옵니다.”

1)성첩(城堞): 성벽 위에 낮게 쌓아 총알과 화살을 막는 담. 2)백이(伯夷): 지조를 지킨 중국의 전설적인 현인. 3)성단(聖斷): 임금의 결단

[문제 3] <자료>가 보여주는 두 현상을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시켜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자료> 일인당 국민소득과 공해산업 비중



[문제 4] [문제 1]의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사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만 택하여 논술하시오. 그리고 <보기 2>를 참고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시오. (25점)

<보기 2>

많은 국가에서 불법이었던 복권사업이 언젠가부터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고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에는 2개의 주에서만 복권사업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4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미국 전역의 복권 판매액은 480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1985년의 90억 달러에 비하면 다섯 배가 늘어난 수치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복권 수입이 주정부 예산의 13%를 차지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복권사업은 세금 인상 없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정부 수입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이다. 복권 구매는 강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자 인기 있는 오락수단이며, 복권을 파는 판매소나 홍보하는 광고회사 등에게도 합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복권 구매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복권사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즉석게임(예를 들어, 스크래치 복권)은 일반인,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유혹이다. 실제로 그러한 복권 구매자들의 상당수가 도박 중독에 빠지고 있으며, 그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